

here  
is  
coffee

히얼 이즈 커피  
홈페이지

박소현\_서비스경험디자인시나리오개발

# 페르소나

이름 : 강다현

성별 : 여성

연령 : 28세

직업 : 간호사

가족관계 : 부모님, 언니, 남동생

라이프 스타일 : 취업 5년차, 다이어트 중이라 먹는 모든 것의 칼로리에 예민하며, 밤낮이 바뀌가면서도 카페인 수혈로 삶을 연장하며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이다.



# 시나리오

다현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한 28세 간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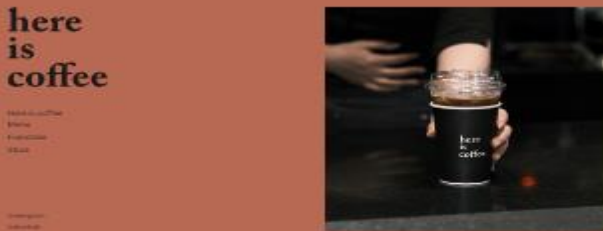
취업을 하고 나서 카페인 섭취량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3교대를 하면서 밤낮이 바뀌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불규칙적이어서 살도 많이 찼다. 병원 근처에는 커피숍이 많아 커피나 간단한 간식을 구매하여 먹는 편이다.

야식이 땡기는 시간 오후 10시, 오늘도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잠도 깼겸 간단하게 먹을겸 근처 커피숍을 찾아보다가 히얼 이즈 커피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4분의 3정도가 커피숍 광고를 하고 그 밑에 시그니처 메뉴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커피숍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봤지만 첫 화면의 동영상에 관심을 확 끌게 만들었다. 오늘 야간에 먹을 간식과 커피를 사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지만 메인화면에서는 시그니처 커피 4가지만 나와있고 사진과 이름 밖에 적혀있지 않아 상단의 메뉴를 타고 들어가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때도 다른 홈페이지처럼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지 않아 조금 당황스럽고 어색해 했다.

다현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칼로리, 성분을 자세하게 보는데 상세페이지 안에서 제품을 클릭하여도 제품설명이나 칼로리, 성분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그나마 칼로리가 적을꺼 같은 제품으로 골랐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직업상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여 칼로리, 성분 등을 다 확인하고 골라서 가는 편인데, 여간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상세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설명과 칼로리 정도는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품을 골라 홈페이지를 나와 커피숍으로 향했다.



# PRODUCTS

커피숍 광고가 메인페이지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제품소개메뉴는 그 밑에 배치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접속 시 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제품소개메뉴

here is coffee's 오리지널

## signature Menu

More View



Hereiscoffee

히얼이즈커피

+



Ice Espresso Aoc.

아이스 에스프레소 알콜

+



Caramel Macchiato

카라멜 마끼아또

+



hic Latte

hic 라떼

+



**+** 를 클릭 하였을때

# PRODUCTS

상품을 클릭 하였을때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칼로리를 제공하여 상세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here is coffee's 오리지널

## signature Menu

More View



Hereiscoffee

히얼이즈커피

+

히얼이즈커피

Hereiscoffee



ICED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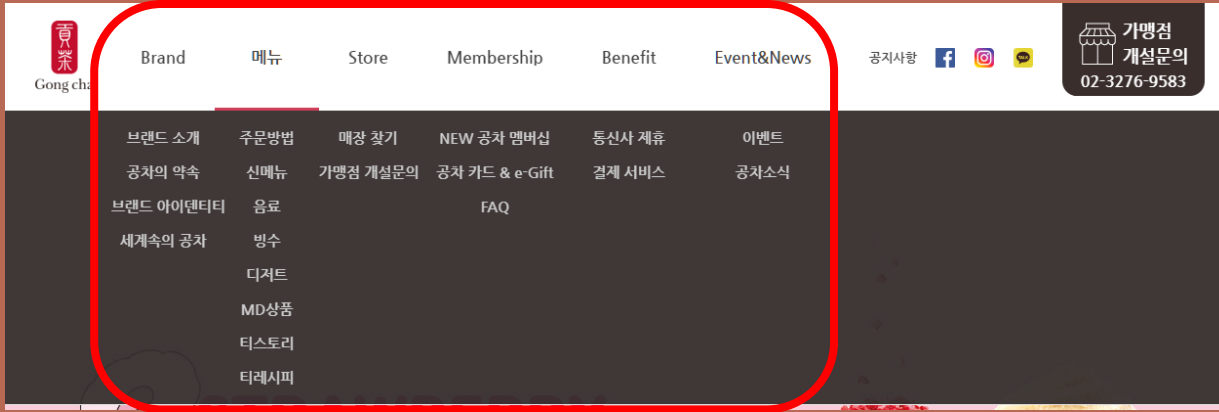
hic Latte

hic 라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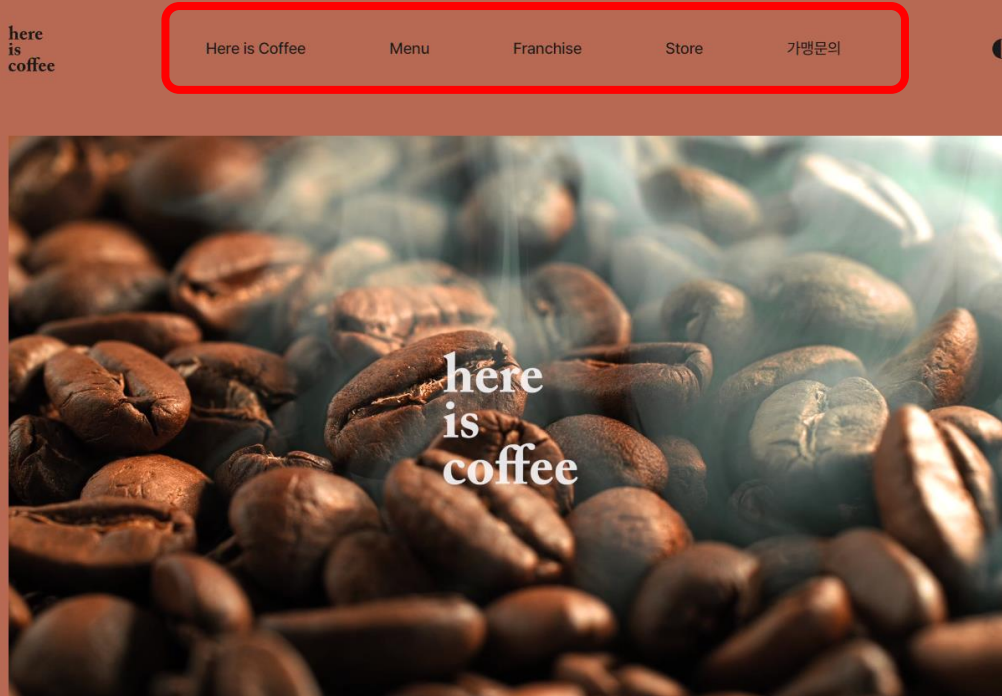
+

×

## [ 타사 홈페이지 ]



## [ 히얼 이즈 커피 홈페이지 ]



# PRODUCTS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때 다른 홈페이지처럼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도록 추가하여 카테고리별 메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here  
is  
coffee

감사합니다.